

이름: 강동수

이메일:

나이: 18

직업: 학생

거주지역: 경기도 안양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2013 2014 처음참여

시험과 체험학습, 축제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평소처럼 아침 7시 40분에 울리는 알람소리. 씻고 교복을 입고 두유 한 잔을 마시고 학교로 출발했다. 51번 버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선이 바뀌어 11-1번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51번보다 훨씬 여유있고 널널하게 11-1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다. 벌써 5월의 3분의 1을 즐겁게 보내버린 나는 빨리 들뜬 마음을 잠재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1교시는 미적분 시간이었다. 시험에서 나를 호되게 골탕을 먹인 과목. 지금 생각해도 아쉽고 후회스럽다. 2교시는 윤리와 사상. 학년부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다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강조하셨다. 3교시 문학시간에는 수행평가의 공지가 이루어졌다.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슬슬 바빠지기 시작할 때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왔다. 밥을 먹고 운동장에 나와 보니 학생들이 변함없이 즐겁게 각자 축구, 농구 등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었다. 나는 1학년 때의 친구들과 탁구를 치면서 점심시간을 보냈다. 오후 수업들은 부담이 없는 시간들이었다. 동아시아 시간에는 UCC 만들기 수업이, 영어시간에는 영화를 보았고 그 다음은 체육시간이었다. 마지막 시간인 일본어까지 마친 4시 50분이 되어서야 모든 수업이 끝나고 석식시간이 되었다. 하교할 사람들은 집에 가고 나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기위해 학교에 남았다. 확실히 그 전 주까지 놀았었다보니 공부가 평소처럼 잘 되지 않았다. 무언가 나른하고 생각이 많았다. 야자를 버티지 못하고 집에 가거나 놀러가는 친구들도 많이 보였다. 그렇게 야자 1부가 끝나고 2부에 출석을 체크하러 오신 분은 1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셨다. 선생님은 지금시기가 한창 공부가 되지 않고 페이스를 놓치기 쉬운 타이밍이라며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꾸준하고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해주셨다. 그 말이 조금은 힘이 되었는지 나는 그래도 내 할 일을 2부 시간에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오늘은 조금 힘든 날이었다. 집중하기 어려웠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이다. 마음을 추스르고 꿈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야 한다.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marchives.org/>